

4. 발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화(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국민들의 높은 화폐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기념 「한국의 주화」 세트 및 4종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국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발행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조지폐 유통방지 홍보,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선정·포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 깨끗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손상된 화폐를 꾸준히 회수하여 폐기하였으며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원활히 협력하여 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가. 화폐 발행

화폐수요에 대응

2020년 중 한국은행은 36조 4,995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14조 6,415억 원의 화폐를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화폐 발행잔액은 2019년 말보다 큰 폭 증가(17.4%)한 147조 5,569억 원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오만원권과 만원권의 발행잔액이 2019년 말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오천원권과 주화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I - 13. 화폐발행·환수 및 발행잔액¹⁾

(억 원)

	2020			2020년 말 발행 잔액
	발행 (A)	환수 (B)	순발행 (A-B)	
은행권 ²⁾	364,725	145,932	218,793	1,450,610 (17.8)
오만원권	252,155	60,998	191,157	1,245,101 (18.1)
만원권	107,345	79,815	27,530	174,878 (18.7)
오천원권	2,302	2,323	-20	14,140 (-0.1)
천원권	2,923	2,797	126	16,311 (0.8)
주 화 ²⁾	270	483	-213	24,958 (-0.8)
합 계	364,995	146,415	218,580	1,475,569 (17.4)

주: 1) () 내는 2019년 말 대비 증감률(%)

2) 오백원권 이하 은행권, 오원화 이하 주화, 기념화폐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한 화폐는 7억 7,041만 장으로 2019년 말 대비 7.0% 증가하였다. 은행권은 오만원권을 중심으로 43.2% 증가한 반면, 주화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49.9% 감소하였다. 이들 제조화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조 4,676억 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192.5%에 달하였다.

표 III - 14. 화폐 제조규모¹⁾

	장 수(100만 장)		금액(억 원)	
	2019	2020	2019	2020
은행권 ²⁾	440.0	630.0	59,600	174,600
	(-32.3)	(43.2)	(-58.9)	(193.0)
주 화 ²⁾	280.3	140.4	112	76
	(91.7)	(-49.9)	(-66.9)	(-32.1)
합 계	720.3	770.4	59,712	174,676
	(-9.5)	(7.0)	(-58.9)	(192.5)

주: 1)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2) 기념화폐 제외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세트 및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 발행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주화」 세트를 발행하였다. 동 주화세트는 도안, 소재, 지름, 무게가 기존 현용주화와 동일하나 특수한 가공처리 기법을 통해 도안의 선명도를 크게 향상시킨 고품질 주화 세트로서 한국은행 창립 이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로 발행되었다.

그림 Ⅲ- 11. 한국은행 창립 70주년 「한국의 주화」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4종(월악산, 계룡산, 한라산, 태안해안)을 9월 24일에 발행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는 2023년까지 시리즈로 발행될 예정이다.

그림 Ⅲ- 12. 2020년 발행 기념주화

화종	도안	소재·규격
한국의 국립공원 (월악산)	(앞면) 월악산 국립공원 - 월악산 (뒷면) Korean National Parks - Wollak Mountain	·은 99.9% ·지름 40mm ·무게 31.1g
한국의 국립공원 (계룡산)	(앞면) 계룡산 국립공원 - 계룡산 (뒷면) Korean National Parks - Gyeongsan Mountain	
한국의 국립공원 (한라산)	(앞면) 한라산 국립공원 - 한라산 (뒷면) Korean National Parks - Hallasan	
한국의 국립공원 (태안해안)	(앞면) 태안해안 국립공원 - 태안해안 (뒷면) Korean National Parks - Taean Coast	

자료: 한국은행

나. 화폐 유통

위조지폐 유통방지 등 홍보 강화

한국은행은 위조지폐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광고, 대중교통(버스 및 KTX TV, 지하철 등)을 이용한 광고, UCC 공모전,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화폐사랑 UCC 공모전」(7회차)도 계속 개최하여 86편의 응모작 가운데 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밖에 화폐위조범 검거 등에 기여한 2개 경찰서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였다.

2020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272장으로 2019년(292장)보다 20장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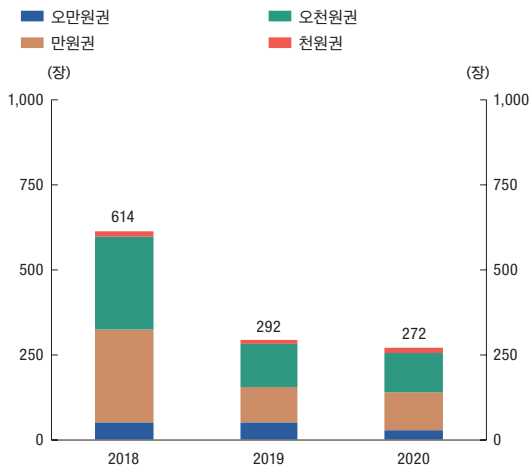
적의 화폐 사용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기관 및 국민들의 위폐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홍보노력이 계속 강화되어 온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I- 13 화폐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시상
(2020년 11월 5일)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 14. 위조지폐 발견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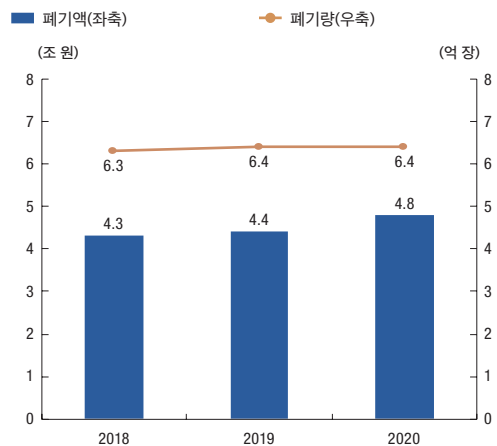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유통화폐 청결도 개선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환수한 화폐 중 훼손, 오염 등으로 재발행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폐기하여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다. 2020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는 4조 7,644억 원으로 장수 기준으로 6억 4,256만 장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은행권이 4조 7,614억 원(6억 848만 장), 주화가 30억 2,599만 원(3,408만 개)이었다. 한편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106억 9,461만 원으로 2019년(73억 9,745만 원) 대비 32억 9,716만 원 증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돈 깨끗이 쓰기」 동영상 배포 등 PC와 모바일,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화폐사용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III- 15. 화폐 폐기규모



자료: 한국은행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한국은행은 상거래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 활동을 2020년 처음으로 전개하였다. 최근 들어 일부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현금 수취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 금융·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비활동 배제나 금융소외와 같은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 진전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현금사용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 대외 협력

한국은행은 관세청,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위조지폐의 발견 동향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계속하였다. 2020년 11월에는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 시중은행 등의 위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폐전문가그룹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여 대국민 위조지폐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검찰로부터 인수하여 위조지폐의 제작 방법과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림 III-16.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포스터



자료: 한국은행

참고 III-3.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벌권 업무 수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오만원권 수요가 큰 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오만원권 영업자금 부족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 수요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오만원권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화폐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오만원권의 발주량을 늘리고 한국조폐공사로부터의 신권 납품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표 III-15. 오만원권 순발행액

(조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발행액	22.8	25.6	25.0	26.7	25.2
환수액	11.4	14.8	16.9	16.1	6.1
순발행액	11.5	10.8	8.1	10.7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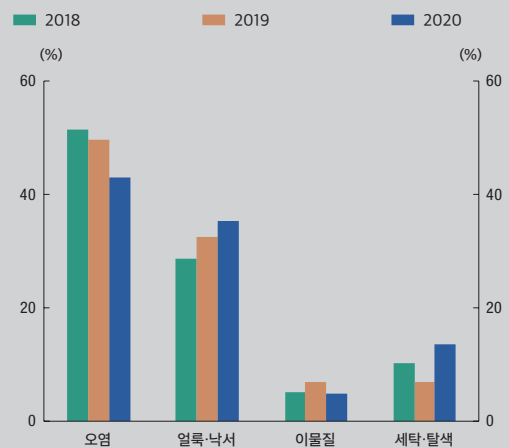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화폐 유통과정에서 화폐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한 화폐의 경우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감안하여 최소 2주 간 금고 내에서 보관한 후 정사⁷¹⁾를 실시하였고 정사 처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화폐의 폐기를 적극 유도하였다.

또한 화폐 교환 업무가 손상·오염 화폐의 신속한 대체는 물론 국민들의 생업 유지 등에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대국민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적극 수행하였다. 2020년 화폐 교환 창구를 통한 교환 횟수는 약 33만 건으로 2019년 대비 약 4만 건 감소하였으나, 세차장 등 국민들의 영업활동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량주화⁷²⁾의 경우에는 3,600만 개를 교환하여 2019년(2,350만 개) 대비 교환 물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화폐사용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예로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일부 국민들이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으로 화폐 소독을 시도함에 따라 화재·탈색으로 인한 화폐 손상이 전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부적절한 화폐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III-17 은행권 주요 손상요인



자료: 한국은행

71) 한국은행은 장수 및 액면확인, 위·변조 화폐의 추출, 사용 가능한 화폐와 손상된 화폐의 구분 등 유통화폐의 청결도 제고 및 위조 지폐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수납한 화폐 및 화폐교환, 국고수납으로 환수된 화폐를 대상으로 정사를 실시한다.

72) 대량주화란 화종별로 500원화 2,000개, 100원화 2,500개, 50원화 2,500개 또는 10원화 5,000개 이상의 주화를 말한다.